



지나 온 날들에 대한 감사

2013년이 시작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을 통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수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남아공의 예수생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 가운데서 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생명교회에도 어김 없이 찾아 왔습니다. 2012년 6월 8일 하나님의 영광 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교회를 통하여 컨테이너 2개를 구입 하여 교회 부지 위에 설치 하던 날 우리 모두는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예배당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에 찾아 오셔서 위로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컨테이너지만 비와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 줄 장막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넘쳤습 니다.



예수생명교회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 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부지의 주변은 온갖 쓰레기와 무성한 풀로 덮여 있었습 니다. 아마도 빈터에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불법적 으로 버리는 것은 남아공이나 지구촌 어느 나라 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 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 보며 소망 가운데

갈 길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 리더들을 키우고 찬양대를 세워 예배 후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의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9월에 하나님께 서는 다시 예수생명교회에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컨테 이너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후원 해 주셨던 교회에서 컨테이너 사 이에 앞 뒤로 벽을 쌓고 바닥을 깔고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건축 비 일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던 날, 모든 예 수생명교회의 지체들은 뿔 듯이 기뻐하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을 삶 속에서 행동 하며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인격을 다

해 동참 하였습니다. 더하여 Port Elizabeth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건축의 일에 동참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건축이 시작 되기 전 2012년 8월 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생명 교회에 그 분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지체인 소년 봉가니가 뇌혈관이 파열되어 긴급하게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갔던 일 입니다. 그의 삼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 알려 준 소식에 우리 모두는 놀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배 후 병원 심방을 시도 했으나 중환자실에 있었던 봉가니를 면회치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삼촌께서 교회로 다시 찾아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봉가니를 철저히 어루만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 후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 그를 기쁨으로 다시 만났고 함께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건축물은 완성이 되어갔고 헌당 예배를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를 주목 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보던 때 예수생명교회의 지체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똑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하는 가운데 11월 17일 자로 헌당예배를 정하였습



니다.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모인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체인 노넬렐라의 고백 때문 입니다. 그 당시 그 자매는 그의 어머니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밤 마다 찾아온 머리가 깨어질 듯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온 가족을 깨워 그 고통을 호소 하였고 가족 또한 그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자매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상고마(무당)에게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 하면서 생긴 갈등이 있었습니다. 헌당예배 전 주일 그 사실을 들은 저는 1주일 동안 기다리며 함께 기도 하면서 헌당예배를 통하여 보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기대 하자고 하였습니다.

헌당예배를 드리던 그 날에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강 같이 넘쳤습니다. 노넬렐라의 할머니께서 그 예배에 참석 하셨고 몇몇의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생명교회의 지체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고 Port Elizabeth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함께 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넬렐라 자매를 강단으로 나오게 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죄를 고백 하는 시간에 자신의 실질적인 죄는 고백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상고마를 더 의지 하려 했던 죄를 고백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후 우리는 자리를 옮겨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일들을 모두 잊은 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헌당예배에 대한 리더들의 Criticized(강평)를 하던 때 노넬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집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8시까지 단잠을 주신 일입니다. 그 자매가 밤에 깨어나 온 가족을 깨웠던 시간 함께 고통 받던 가족들도 그 날 밤에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부흥과 침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심과 회복



2012년 12월에는 2주간 새 물결 선교회가 주체한 “십자가 복음” 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온 맘에 채우고 소망 가운데 2012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한국에서 남아공을 방문 하셨던 전 원교회 담임이신 이용균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돌아 보시고 예수생명교회를 방문 하셨고 정성을 담은 헌금을 드리셔서 앰프,

아이스박수, 제네레이터 그리고 23인치 모니터가 달린 컴퓨터를 2013년 1월 21일에 구입 하였습니다. 2012년을 지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생명교회를 품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아침부터 바람이 무척이나 강하게 불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 노넬렐라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 왔다. 교회의 지붕이 바람에 뒤집혀 땅 바닥에 떨어졌다는 전화였다. 교회의 주변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곤 했는데 다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 긴급 사항을 알리고 교회로 차를 몰아 교회에 도착하였다. 주변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 30분이 지났을까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여 대책을 마련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던 주민이 어떤 일인가를 물었다. 오후에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 하는 동안 그 분이 건축에 종사 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 분은 지체 하지 않고 도우미 한 명과 교회의 아이들과 함께 지붕을 분해 하였고 분리 된 것들을 컨테이너 안에 보관 할 수 있었다. 일을 마무리 하고 집으로 돌아 오는 그 시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다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2~13)

2013년 2월 1일 금요일



2012년 12월 남아공을 방문 하셨던 전원교회 이용균 목사님께서 교회 주변에 울타리를 치도록 또 한번의 귀한 헌금을 보내 오셨다. 주변에 불법적으로 버려졌던 쓰레기들을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중장비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작업 하는 동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 해 한다. 10년 가까이 기다려 온 선교교육센터가 건축 되는 첫 걸음이라고 굳게 믿었다. 교회의 아이들도 틈이 나면 달려 나와 진행되는 일들을 보며 마냥 즐거워하며 교회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2013년 2월 2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잠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오늘 진행 할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집을 나서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여 보니 예배당 입구에 설치 된 방범 창을 뜯어 내려 한 흔적과 함께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휘어져 있었다. 순간적으로 허탈감을 느끼며 멍해졌다. 지붕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교회에 비웃음을 던지던 주변의 조상신을 숭배 하던 사람들의 말들이 귓전을 때리며 지나 갔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지붕이 바람에 날려 땅 바닥에 떨어질 때 교회를 잘 보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채가시기도 전에 교회의 방범 창이 부서지고 휘어진 아픔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도려내는 것 같다. 순간순간 다가 왔던 그 동안의 영적 싸움 가운데 느꼈던 순간적인 두려움이 커다란 파도가 되어 나를 뒤덮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정도로 내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9년여를 한 지역에서 예수생명교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당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 왔던 것 같다.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금 후 아이들이 달려와 내게 안기고자 할 때에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쓰레기 제거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40분 동안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2013년 2월 3일 주일

어제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찾아 온 충격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였다. 방법 창이 부서지고 휘어지는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밤 예배당의 문짝이 사라져 버렸다. 망연자실 해 있을 틈도 없이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키기 위하여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람에 날아가 땅 바닥에 떨어진 지붕, 며칠 뒤 방법 창을 뜯어 가려던 흔적 그리고 밤새 사라진 예배당의 문 등 그것들의 가치들을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전부였다. 나의 몸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이 나의 전신을 휩싸 오고 있다. 예수생명교회가 당한 일들을 보며 기뻐할 어두움의 영들에게 나의 자존심이 무참히 찢겨진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같아 숨이 멎추는 것 같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긴 승리감을 느끼기도 전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 받는 것을 알고 도망가며 갔던 비참함이 나의 가슴에 느껴져 오는 것 같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갖던 그 마음이 나의 가슴에 젖어 온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절규하며 드렸던 그 기도의 소리가 나의 귓전에 메아리 져 울린다.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피와 살을 나눈 교회에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나와 아이들은 한 없이 울었다. 예배당의 문이 도난 당하고 방법 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뒤틀어져 하늘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바다가 되었다.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약 3주간에 걸친 울타리 공사가 철문이 설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울타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생명교회에 파수꾼을 세웠다. 예수생명교회의 청년 난디파, 시네 그리고 음잠모 등이 밤을 새워 교회를 치켰다. 그 동안 주민들도 공사가 진행되는 낮에는 물을 공급 해 주었고 함께 교회를 살펴 주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비바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주고 기도 할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울타리는 설치 되었지만 그 동안 몰려 왔던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그 가운데 만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그 동안의 힘겨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운 싸움 보다 앞으로의 싸움이 더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아이들이 지쳐 간다.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며 뜨거운 컨테이너 안에서의 예배는 마치 불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 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결석 하기 시작한다. 그 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늘어난다. 철저히 나의 한계를 느낀다. 오직 내가 간구 하기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면 아이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이 있을 때면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오게 하여 놀이를 하게 하곤 했다. 아이들은 마치 천국에 있다는 생각인가 보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깨끗해져 다시 주님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선교지에서 11년이 지나고 12년 차로 접어든 시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나의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실질적 삶 가운데 나의 전부를 드려 섬기시기를 요구 하시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당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 해 주셨다.

2013년 4월 첫째 주

4월 첫주부터 올 연말까지 전원교회의 이용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복음신문에 남아공과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찾고 있다. 연재되고 있는 글이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나를 통하여 쓰여지고 있음에 더욱더 겸손 해 진다.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도 드린다.

2013년 4월 28일 주일



4월 21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 사인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풀들, 어디선가 날아와 교회 마당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 상심에 빠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나의 시야에 들어 왔다. 아이들과 함께 풀을 깎아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제단에 나아가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영적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생명교회에 부어지기를 열망 해야지. 우리를 주목하며 기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어서야지. 주여 내가 주를 찾고 또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온 백성들이 보도록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절절한 기도가 떠오른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다윗,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제를 올려 드리자.

2013년 5월 9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생명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울타리를 친 후 교회가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다시 들려 온 소식이 나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 철조망이 부분적으로 절단 되어 있었고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가 절단 되었다. 그 동안 가져 왔던 컨테이너의 안정성에 대한 나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주님 보다 높이 설치 된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더욱더 의지 한 것은 아닌지 뒤 돌아 보게 된다. 세상에 주님의 보호 하시고 지켜 주심의 은혜가 없이 무엇이 우리를 안전케 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 31:1~24)



과연 주님의 뜻은 어디 계신 것일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음부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 18:1~50) 시편은 곧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기도가 되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미천한 나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기셨음에 무한 감사가 나온다.

울타리 공사를 했던 분을 찾아가 절단 된 철조망을 수리 하게 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가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도전은 같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요사이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까 염려가 된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칭송 받아야 한다. 5월 12일 예배시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안정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일주일의 지나 5월 19일 예배를 마친 후 아내인 한은경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경찰에서 사람을 보내어 철조망을 뚫고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끊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주여 그 영혼을 용서 하소서. 그들이 무지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넘보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 아프리카에서의 택시는 두 종류가 있다.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며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택시는 승합차로서 약14명 정도 탑승 할 수 있는 택시다. 이곳에서 12년 차로 접어 드는 동안 택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무수히 들어 왔다. 벌써 3년을 넘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다.

남아공은 현재 겨울로 접어들어 저녁 5시가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6시면 캄캄해진다. 택시를 탄지 약 20분 정도 지났을 때 택시는 “이바이” 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 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택시를 멈추라는 고성이가 들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6명이 일어나 나를 에워쌌다. 두 사람이 양 팔을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목에 대고 나머지 사람이 나의 휴대폰을 빼앗고 호주머니를 뒤져 자기고 있던 소지품들을 탈취하였다. 착용 하고 있던 안경 그리고 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 그 와중에 손가락이 칼에 약간 상처가 났다. 말로만 들어왔던 택시 강도를 당하는 순간이었다. 택시가 멈추어선 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그들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택시기사에게 허튼 짓을 하면 총으로 쏠것다는 말을 하고 교회 옆으로 나 있는 작은 골목 길로 사라졌다. 너무도 순간적인 일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택시는 다시 그곳을 떠나 목적지로 향했고 택시 정거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나를 태워 집으로 돌아 오는데 나의 모습이 평상시 같지 않은 것을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묻는다. 택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여는데 전원교회 이용균 목사님의 외손자인 상록이가 나를 맞이하며 “목사님 오늘 저녁은 5년은 더 늙어 보여요” 라고 말했다.

이 일을 당하고 택시는 타고 내려 오는 동안에 11년 2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 하고 있는 큰 딸 영은이의 얼굴과 가족들이 얼굴이 교차하며 지나갔다. 나로서는 가족들이 염려할까 아주 태연한 척 했지만 나의 표정에 변화가 있었던지 모두에게 보이고 말았다. 아직도 아내와 몇 분의 선교사님들 이외는 알지 못한다.

세계선교의 종으로 쓰임 받던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 온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롬 8:18~39) 그 분은 분명 선교의 사명을 수행 할 때마다 모든 위험을 만났고 수 없이 많이 죽음에 처할 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조금도 주저 하지 않고 그의 달려 갈 길을 달려가고야 말았다. 6월 3일 드릴 예배는 나의 약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 드릴 뿐이다.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예수생명교회의 아이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영은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가족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들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 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영은이와 통화를 하는데 지난 5월 22일 치렀던 두 곳 중 헝가리 페치 국립의대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 주셨다. 6월 5일 수요일 다른 한 곳인 세멜바이즈 국립의대에서도 합격통보가 왔다. 영은이는 세멜바이즈 국립의대를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훗날 영은이는 모든 공부를 마치면 국제적십자사나 유엔본부에서 의료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파송되어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2002년 3월 27일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버지를 따라 선교지로 나온 영은이는 첫째 언어가 되지 않아 한 학년을 낮추어야 했다. 그랬던 영은이는 언제나 선교사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했다. 교회에서도 나의 가장 큰 협력자로 일을 잘 감당 했다. 자연스럽게 영은이의 마음 가운데 선교적 꿈을 갖게 되고 의료선교를 꿈꾸는 것을 보았다. 나는 끝없이 하나님께 여쭙었다. 하나님께서 영은이를 의사로서 부르셨는지를 확인 하는 일이었던 것 같다. 선교사나 목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종사 하는 일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 길은 넓어 보이지만 험난하며 힘든 길 일수밖에 없는 길이다. 영은이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끝없이 의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학교에서 해부를 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연락 해 보였던 영은이는 기가 살아나 즐기곤 했던 이야기들을 들곤 했다. "Shadow Work" 이 말은 학교에서 실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영은이는 이 기간에 병원을 택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수술실에서 일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못내 아쉬워하는 영은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드렸다. 이제 영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긴 인생의 여정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험난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영은이를 의료선교사로서 다듬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자녀를 통하여 위로자로 찾아 오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영은이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다.

6월 28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학비가 마련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영은이를 의사로서 부르셨으니 이제 영은이를 다듬어 가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섭리 가운데 있어 마음 편히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요사이 나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제목이 있다.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



첫째, 예수생명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20M X 20M 짜리 텐트가 필요하다.

둘째, 사역을 위하여 승합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2013년 12월 중에 예수생명교회의 찬양단 10~12명 정도의 청소년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을 도우실 전원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일을 준비 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 드린다.

넷째, 영은이가 6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의료선교사로 커 갈수 있도록 도와 줄 후원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 하고 있지만 나의 남은 일생을 선교에 올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 드린다. 가진 상황이 어떤 하든지 그 넘어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지기를 기도 드린다.

여섯째,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 하며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드린다.

일곱째, 현재 4월부터 복음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남아공과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글을 통하여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 드린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 18:2)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올림

후원계좌: 국민은행 665925-93-124757 예금주: 배성호



배 성 호 목사
Rev. SUNG-HO BAE Hope of Africa

Tel 070 7583 4430 / 27 41 581 4430
Mobile 27 82 418 7689 / 27 73 270 8844
Email sungho1958@gmail.com
후원계좌번호 665925 93 124757 Bank 국민은행

Life of | 예수생명교회 | Jesus Church | college